

광주축산농협, 금융-로컬푸드 결합 직매장 개장

학동 뉴타운 지점 문 열어 신선한 제품 유통 거품 빼 소비자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다양한 시너지 효과 기대도

화순도곡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매일 밀려드는 소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그날 수확한 농산물을 당일 한해서 판매한다는 입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신선한 제철 농산물을 신선한 상태에서 판매하는 전략으로 성공한 로컬푸드직매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광주축산농협(조합장 안명수)이 광주시 동구 학동 아이파크 아파트 상가에 광주축협의 자랑인 안전하게 생산한 한우 등 축산물 이외에도 당일 채취한 농산물을 함께 판매하는 금융점포를 겸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열었다.

최근 열린 개점식에는 김성환 동구청장, 이흥록 농협전남지역본부장, 박태선 농협광주지역본부장,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일 신선한 제품을 150만 광주시민에게 제공하는 곳이다.

특히 광주축산농협의 우수한 축산물뿐만 아니라, 화순도곡농협 로컬푸드에서 공급하고 있

는 농산물은 생산자가 산지에서 매일 직송하여 신선함 그대로를 전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안명수 조합장은 “금융점포와 로컬푸드 직매장이 결합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농·축산물의 부가 가치 향상을 통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축협은 도시농협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의 대불배합사료공장과 업소 전용 축산물 음식재료 판매장, 웰빙 하나로 마트 및 한우 직매장 12곳과 근남사업 등 경제사업 비중이 전체 사업량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지난해 22% 배당을 하며 조합원의 실익도 늘렸다.

이 같은 성과를 통해 광주축협은 농협생명 연도대상, 농협손해 연도대상을 수상했고, 종합업적평가 전남 최우수, 전국 2위로 경영 최우수 1등급 조합에 선정됐다. 예수금도 지난해 9월에 5000억원 달성 후 6개월만에 1000억원이 순증해 사업물동량 1조3000억원을 향해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1968년 문을 연 대불배합사료분부는 다양한 가공시설과 짧은 제조 동선을 통해 사료의 원가를 줄이면서도 양질의 사료를 생산하고



광주축산농협이 동구 학동 아이파크 아파트 상가에 당일 채취한 농수산물과 깨끗한 한우 등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열었다. <광주축산농협 제공>

있다.

안 조합장은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떠오르는 동구권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큰 교통보가 될 것이다”면서 “보다 빠르고 친절하고 신선함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200여 전 직원들이 최상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축협의 발전은 조합원들이 힘 덕분이다”면서 “조합원님들에게 배당 한 13억원에 오히려 더 보태 15억을 현금 제출자해준 놀라운 단합과 신뢰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광주축협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글로벌 경기회복·기업 실적 개선 신정부 경제정책 따라 추가 상승 기대 화장품업종·자동차 부품주 주목

코스피가 2240선을 넘어 6년만에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주 휴일로 증권시장이 이틀밖에 열리지 않았지만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21.57포인트(0.97%) 상승하며 2241.24포인트 기록했다. 이로써 2011년 5월 2일 2231.47포인트를 넘어서며 한국주식시장에 새 역사를 썼다. 이날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도 전일보다 13조원 증가하며 1.454조를 넘어섰다 사상최고치로 집계됐다.

코스피지수의 사상최고치 경신에 일등공신은 외국인투자자의 '바이코리아(Buy Korea)'라 할 수 있다.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만 3612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상승을 이끌었다. 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펀드환매로 기관은 5조원이 넘는 순매도를 보였지만 외국인은 6조7000억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고 최근 코스피지수가 탄력적 상승을 보이기 시작한 지난달 20일 이후에만 2조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다.

코스피지수를 사상최고치로 이끈 대장주는 단연 삼성전자라 할 수 있다. 올 들어 코스피지수는 10.6% 상승했지만 삼성전자는 26% 상승하며 4일 종가기준 227만 6천주를 기록했다.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말 19.17%에서 21.8%(317조8639억)로 증가했다.

코스피지수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연초 코스피지수 상단으로 2300선을 예상했던 증권사들의 올해 코스피지수의 상단이 2350선 이상으로 수정 제시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유진투자증권도 연초에 2300선을 예상했으나 지난달 2350포인트로 수정하여 제시하였으며 대박리스크 완화 및 신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하고 있다.

지급의 상승국면은 글로벌 경기회복과 국내기업의 실적 개선이 동반되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어진 대세상승기와 닮은꼴이라는 분석이 많다. 2004년 미국이 금리를 완만하게 올리며 경기회복기에 진입했고 중국이 글로벌 공장으로 급부상하며 주변국 중 한국이 중국수혜국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시기에는 적립식편드와 국민연금의 주식비중을 늘리며 매수 주체로 부각되었고 조선 해운 철강업종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특징적인 것은 이시기에 코스피지수가 713포인트에서 2085포인트로 192% 상승하는 동안 주도주인 현대중공업은 2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2000%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당시 시가총액 1위였던 삼성전자는 42만원에서 67만원으로 상승해 59% 상승)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종목별 상승을 비교하는 것은 필자가 수 차례 언급했듯이 추세적 상승장에서 주도주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다. 최근 IT, 소재, 은행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이 있는데 주도주의 상승흐름이 둔화될 때 타 업종의 반등도 나오겠지만 수익 측면에서는 주도주 보유전략을 지속하는 것이 좋을 보인다.

하지만 급등한 주도주에 가격 부담으로 신규매수가 어려운 투자자라면 중국사드보복이라는 업종 이슈가 작용하기도 했지만 최근 중국이 다변화를 통해 가격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화장품업종과 5월부터 실적회복 기대감이 있는 자동차 부품주의 매수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가능해 보이며 코스닥시장의 바닥징후도 나타나고 있어 실적 개선되는 코스닥 중소형주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농협경제지주,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 앞장 '농업경제 온(溫)마음 CS 3.0' 추진 실천 결의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 김원석)는 최근 광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호남권역 지역농협 전·상무 250여명, 경제지주·지역본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경제 온(溫)마음 CS 3.0' 추진을 위한 실천 결의를 했다.

이번 실천결의는 지역농협·품목농협과도 CS정신을 함께 공유하여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만들기 위해 진행됐고, 조합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경제지주가 개최하는 '권역별 열정토크'와 함께 진행됐다.

농협경제지주는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어갈 판매농협 구현'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다양한 사업장에

대한 일관적인 CS운영체계를 극복하고,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CS 체계를 통해 진정성 있는 고객만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에 따라 '농업경제 온(溫)마음 CS 3.0'비전을 선포해 추진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김원석 대표이사는 “농업인, 소비자 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직원 모두에게 따스한 존경을 담은 배려로 고객 감동을 이끌어 내주길 바란다”면서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경제지주와 지역·품목 농협을 만들어,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여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농어촌공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받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은 6차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전담조직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률적 지위를 갖게 된다.

공사는 중앙지원기관으로서 농식품부를 보조해 ▲정책사업 관리지원 ▲6차 산업 정책지원 ▲6차 산업 역량강화 등을 수행하게 된다.

향후 공사는 전국 단위의 사업추진, 지역별 사업 조정, 농촌관광 활성화 등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는 2008년 농촌활력사업부문을 설립한 이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활력사업', 농어촌 향토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농어촌산업박람회 개최 및 정책사업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을 추진해 농어촌의 6차 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다.

공사는 6차산업과 지구사업 및 지역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등 새로운 정책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6차 산업 인증제 시행에 따른 전문 컨설턴트 및 인증 사업자 관리, 우수제품 발굴 및 판로개척을 위한 품평회, 공영출소품 판매방송 등 6차 산업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T "생화 카네이션으로 어버이께 감사의 마음 전하세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여인홍) 화훼사업센터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황금연휴 영향 등으로 어버이날 화훼 성수기에 소비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생화 카네이션 선물을 독려하고 있다.

최근 들어 꽃 대신 상프린, 건강식품, 패션용품, 취미용품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금방 시드는 생화가 아닌 오래 볼 수 있는 조화 카네이션이 이용됨에 따라 생화 카네이션 소비가 줄어드는 가운데 저가 수입꽃이 대량 유입되면서 농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화훼사업센터는 지난해부터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카네이션꽃 기부 및 어버이날 코사지 만들기 등 동행하여 지역 내 독거어르신께 달아드리라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는 카네이션 및 만개 등 350송이의 꽃을 기부, 약 7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코사지 제작 및 전달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aT 심정진 화훼사업센터장은 “소중한 부모님께 1년에 한번 표현하는 감사의 마음을 생화 카네이션 속에 담아 더욱 뜻깊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정리
Step 2. 단열미스카넷
Step 3. 외벽외트랙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옵션이 채워진 컬러그래프에서 만나보세요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페넨디자인러 잔 엔디자인외의 콜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2중외벽 단열방수, 방수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10-6603-0405,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치평동 상가 매매

- 상무나이트 옆 수림상가
- 10층 중 10층 795㎡(250평)
- 임대가(5000만/350만)
- 감정/시세 8억 7700만
- 급매 7억 7000만

봉선동 아파트 매매

- 봉선동 포스코 아파트
- 17층 111㎡(33평)
- 교육환경 최상
- 시세 4억 3000만
- 매매 4억 1500만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 수기동 23-2번지 제일오피스텔
- 19층 95㎡(28평)
- 임대중(400만/월 47만)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5900만

문의 010-9203-6161